

# 우리나라 일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김 경 속 · 박 재 산 · 문 재 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세대학교 경찰복지학부)

##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와 사회보장 등의 사회복지 욕구를 증대 시킬 것이며 4고(四苦)로 일컫는 노인문제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노인의 평생교육과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할 것이다. 신체적으로 노년기에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노부부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심리적 고독감 및 소외감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서비스는 고령사회의 다양한 노인계층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재가노인과 지역사회노인들을 위하여 여가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개입이 절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과 스트레스와 그대처방법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향후 적절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통하여 많은 자원과 연계하여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표본 추출은 재가노인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종교단체(교회)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을 유의 표집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18개의 문항과 정인과 등(1997)이 개발한 한국형 노인우울척도(KGDS)를 사용하여 우울검사 질문 30문항과 김재경(1997)등이 사용한 노년기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척도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18문항, 대처방식 16문항으로 총 8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주로 5개 응답변수를 갖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부노인의 정신건강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우울 정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노인의 스트레스와 대처 정도는 다를 것이다. <가설3> 여가활동을 종교단체에서 이용하는 노인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정신건강 정도는 차이가 날 것이다.

### 3. 연구결과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 우울정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의 경우 구성차원 중 정서적 불편감에 있어서는 성별변수, 고민 유형 중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달 용돈, 용돈 수입원, 여가시간활용(라디오, 텔레비전 및 음악 등 예술활동)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지기능 저하의 경우 건강문제, 여가, 문화활동부족, 주택·주거관련문제, 용돈수입원, 여가시간활용(라디오·텔레비전, 가족, 손자녀 돌보기, 종교활동 등)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의 경우 구성차원 중 가족관계문제의 경우 지역, 성별, 학력, 용돈수입원, 동거형태, 동거희망, 병시중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대처방식의 경우 구성차원 중 종교사회적 지원의 경우 지역,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주거소유, 음주정도, 흡연정도, 동거희망이유, 병시중, 여가시간활용 변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  $p<0.01$ ). 둘째, 여가활동 중 종교활동과 경로당이용노인의 정신건강 비교분석한 결과 우울 및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나타나지 않았고 대처방식 중 종교·사회적 지원에 있어 종교 활동을 하는 노인그룹이 경로당이용노인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p<0.05$ ,  $p<0.01$ ).